

태권도 경기화의 본산 전라북도 태권도를 조명하다

2016.5.24.(화) 14:00~16:00
전라북도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주관  think
전북연구원



태권도 경기화의 본산
전라북도
태권도를 조명하다



2016.5.24.(화) 14:00~16:00
전라북도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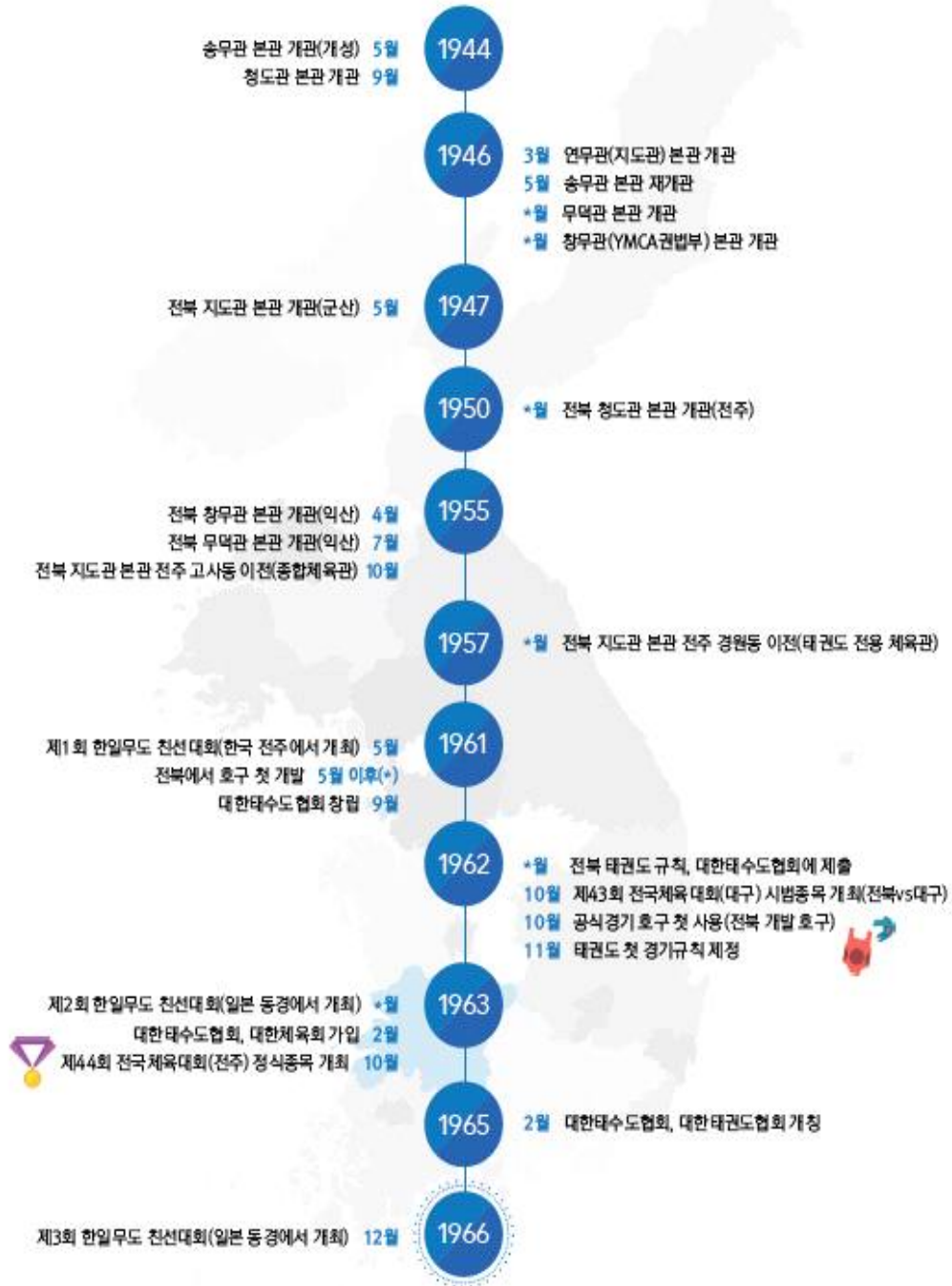
주최 · 주관  think
전북연구원

1 주제

태권도 경기화의 본산 전라북도

최윤규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경기화 초기 전라북도 태권도 연보



*월이 불분명함.

태권도 경기화의 본산 전라북도¹⁾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세계적 스포츠이다. 2015년 8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산하에 5개 대륙, 206 국가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²⁾. 대한태수도협회부터 시작으로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뿐만 아니라 핵심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대부분의 무도는 자기수련을 주목적으로 형(型)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반면 태권도는 겨루기를 통한 승패를 가르치는 경기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동안 태권도 발전은 서울 국기원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에 반해 지역에 위치한 전북 태권도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왔다.

태권도의 경기화 초기, 활발하게 겨루기를 실행하던 전라북도의 태권도 규칙과 용어가 공식 규정으로 채택되는 등 태권도 발달과정에서 전라북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전라북도는 무주군에 태권도원이 2014년 4월 개원됐고,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하는 등 태권도 중흥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태권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역사적으로 전라북도 태권도가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기여도를 확립함으로써 전라북도 태권도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태권도 관련 서적 검토를 통해 태권도 기원 등 태권도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문헌검토를 통해 태권도의 기원과 성립과정, 전라북도 태권도의 역사, 전라북도를 빛낸 태권도 인물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태권도 전문

1) 본 원고는 최윤규 (2016) '전라북도 태권도 위상정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요약본임을 밝힙니다.

2)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 <http://www.worldtaekwondofederation.net/members-map>

가 자문과 원고를 통해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였다.

1947년 군산 연무관 지관(지도관) 개관으로 전라북도에 처음 도입된 태권도는 다른 지역보다 이르게 태권도를 받아 들었다. 태권도 경기화 초기인 1960년대 지도자나 출전 선수들이 현재 생존해 있다. 당시 전라북도 태권도와 관련된 자료들이 문서로 명확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존해 있는 원로들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정보를 습득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획득된 정보들은 경기규칙, 기술 등 유목에 따라 체계화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관련 자료를 통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구체적으로 태권도 경기화과정에서 경기규칙 제정에 전라북도 태권도가 미친 영향과 경기기술 발전에서 전라북도 태권도의 역할, 세계화 과정에서 전라북도 태권도의 역할 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밝혀냈다.

제 2 장 태권도의 발달과정에서 전북 태권도

1. 태권도의 역사

태권도의 기원과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태권도라는 이름이 5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하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정착했고, 관(館)이 생기기 시작한 1940년대 중반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과 문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통치를 받는 단절의 역사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태권도 원로들이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도 서로 다르다. 원로들의 기억과 증언도 태권도의 뿌리 찾기에 대한 충분한 조망을 제공하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편린적인 것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보는 사관(史觀)도 연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태권도의 기원과 성립과정을 보는 관점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현재 태권도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태권도의 기원은 크게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사실주의)로 나뉘볼 수 있다. 전통주의에서 신전통주의, 수정주의에서 신수정주의를 별도로 나누거나, 문화융합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

전통주의는 태권도가 예로부터 전해져 오던 우리의 전통무예를 계승했다는 것으로 80년대까지 폭넓게 퍼져 있었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태권도는 전통 무예와 관련이 없으며, 일본에서 가라데를 배운 유학생들에 의해 공수도로 시작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주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자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주의 입장은 어찌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기도 어렵다. 5대 기간 도장을 설립한 인물들이 가라데나 권법을 배웠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태권도와 택견의 유사성과 공통점에 주목하게 됐으며, 이는 신전통주의로 불린다. 가라데의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태권도가 택견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가라데의 영향을 과도하게 평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태권도가 가라데뿐만 아니라 중국 권법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중국 권법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소위 ‘신수정주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박귀순 등(2015)은 “태권도의 전통주의, 신전통주의 사관은 역사적 사실성이 부족했으며, 이 두 사관과 수정주의 사관이 모두 중국 권법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배제되어 있었다. 신수정주의 사관은 수정주의 사관을 대폭 수용하여 중국 권법의 영향 가능성이 보완된 새로운 사관이다.”³⁾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문화융합적 입장으로 태권도를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다. 문화융합이란 한 사회의 문화가 외래문화와 접촉해 새로운 문화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주의를 계승한 문화융합적 사관은 태권도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가 아니라 다른 유사한 무술들을 제치고 세계화와 대중화에 성공했다는 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제 치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술이 숨 쉴 공간이 없었다. 일본이 1910년 조선을 강제로 합병한 이후부터 우리의 무술을 엄격히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하나이기도 했지만, 무술은 곧바로 독립을 위한 전투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일제가 이를 두려워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태권도 도장들이 생겨난 것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부터이다.

5대 기간도장(연무관, 청도관, 무덕관, 송무관, 창무관)은 1~2년의 짧은 시간 차를 두고 생겨나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또 5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부터는 기존의 관으로부터 새로운 관이 생겨나는 등 한때는 40여 개의 관이 난립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태권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로부터 계속되고, 그러한 작업이 추진됐다. 태권도의 통합과정을 거쳐 1972년에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개원한 국기원이 성립될 당시에는 5대 관에 정도관, 오도관, 한무관, 강덕원 등 4개가 추가된 9개의 관으로 정비됐으며, 태권도로 통합된 이후에는 기존의 관 이름 대신에 숫자를 붙이게 됐다⁴⁾.

3) 박귀순·김태양·하정희 (2015). “한국의 태권도 사관에 관한 시론”. 『한국체육사학회지』, 20(1), 98쪽.

4) 제1관은 송무관, 제2관은 한무관, 제3관은 창무관, 제4관은 무덕관이며, 오도관은 제5관, 강덕원은 제6관, 정도관은 제7관, 그리고 지도관이 제8관, 청도관이 제9관이다. 서로 이름을 내세우지 말자는 뜻에서 숫자를 붙

2. 태권도의 경기화 과정에서 전라북도

2015년 11월말 현재 세계태권도 연맹 가입국은 아프리카 50개국, 아시아 43개국, 유럽 50개국, 오세아니아 19개국, 아메리카 44개국 등 206개국에 달한다⁵⁾. 이들 나라에서 수련하는 태권도 인구는 8,000만 명 가량이라고 한다.

태권도 세계화의 가장 큰 계기를 연 것은 경기화(sports)이다. 1970년대부터 많은 사범들이 해외에 나가서 태권도를 보급하면서 저변을 확대한 공로를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태권도가 경기화 되지 않고 예전의 무도에 머물렀다면 오늘날의 위상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0, 70년대 전북의 태권도 역사는 우리나라의 태권도 역사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경기화된 태권도가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적용된 규칙이 곧 우리나라 경기규칙의 일부가 됐고, 전북에서 개발된 기술이 우리나라 태권도 기술이 됐다. 이는 전북 태권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도관은 유달리 겨루기(대타)를 중시하고 다양한 대회를 많이 개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지도관이 군산에서 시작해서 전주에 정착하면서 군산과 전주라는 지역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도 경쟁의식을 부추긴 요인이 됐다.

사실, 태권도의 겨루기는 기본자세, 품새, 격파 등과 함께 대부분의 관들이 수련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태타는 간접타격을 원칙으로 했고, 전북의 지도관도 초기에는 간접타격 방식을 채택했다. 간접타격 방식은 상대의 목표 부위에 기술이 닿기 직전에 기술을 멈추는 촌지방식(寸止方式)으로, 이는 실제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이 어렵고 흥미도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전주에 등지를 튼 지도관은 5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직접타격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또 지도관은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대회를 자주 열었다. 도장별로 매년 2~3차례씩 대회가 열렸고, 그 해의 왕중왕을 뽑는 대회도 있었다. 똑같은 형식의 대회가 전북본관 주관으로도 열렸다. 또 중앙(서울)과의 교류전은 물론, 한일 교류전도 있었다.

특히, 전주와 군산의 지도관끼리의 겨루기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지역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양상을 띠었고 과열되거나 후유증을 남기기 일쑤였다. 김혁래 사범의 친동생인 군산시태권도협회 김혁종 고문은 “군산과 전주 간의 시합

였지만 지도관 등은 지금도 숫자 대신에 관의 이름을 주로 쓰고 있다.

5) <http://www.worldtaekwondofederation.net/>

이 열릴 때면 일주일 전부터 잠을 설치곤 했다. 대회가 전주에서 있을 때 전북팀이 이기면 뒤탈이 없는데, 군산팀이 이기더라도 하면 난리가 났다. 버스터미널까지 쫓아와서 버스를 못 타게 텃새를 부렸고, 피해 다니고 숨느라고 난리를 쳤다. 그렇다고 일부러 질 수도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추억거리다”고 말했다.

1956년에는 서울 창경원에서 전북팀과 서울팀의 경기가 있었다. 교통편이나 숙박시설 등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이라, 전북팀은 전날 전주역에서 밤늦게 열차를 타고 무려 10시간을 달려가서 경기를 치른 뒤 당일에 돌아오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팀은 이날 서울팀에 전혀 밀리지 않고 선전해 유병룡, 장점동⁶⁾, 이승완 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도관 1대 관장이었던 윤쾌병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1950년대부터는 한일전 겨루기 시합이 자주 치러졌다. 이때 전북출신 선수들이 한국 대표의 대부분을 차지해 서울과 전주에서 격년으로 대회가 열렸다가 나중에는 아예 서울과 전주에서 별도로 한일전을 치렀다. 전주에서는 1961년 5월에 처음으로 전주공설운동장에서 한일무도 친선경기가 벌어졌다. 뒷날 한일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이날 경기에는 양팀에서 각각 20명씩의 임원과 선수들이 참가해 겨루기와 연무시범 등을 실시했다.

1961년 전주에서 한일전이 처음으로 열린데 이어 1963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이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때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뽑힌 10명 중 6명이 전북인이었다. 주장을 맡은 이승완(현 대한태권도협회장)과 이문성, 황대진, 최영렬, 안대섭, 조점선 등이었다⁷⁾.

통일된 경기규칙이 없으면 혼란이 오고 시뻘거리가 된다. 규칙이 일정하고 사용되는 용어와 신호가 통일돼야 혼란이 서로 믿을 수 있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의 태권도인들은 일찍부터 용어와 수신호 등을 개발했고, 이는 나중에 우리나라 경기규칙의 일부가 됐다.

태권도는 1962년 10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는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된 뒤 1963년 10월 전주에서 열린 44회 전국체전 때부터 공식경기⁸⁾가 됐다. 대구 시범경기에서는 전북과 대구의 선수들이 겨뤘는데, 전북에서는 고난도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차등점수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6) 63년 전주에서 열린 44회 대회에 이어 45회 인천체전, 46회 광주체전에서도 미들급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냈다. 점프하여 양발차기가 주특기로 요즘 프로스포츠 K1에서 일부 선수가 사용하는 고난도 기술을 사용했다. 투지가 매우 좋고 미들급이었는데도 마치 플라이급처럼 날렵했다고 한다.

7) 이승완은 6명 모두가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나, 도내 태권도 원로들은 황대진은 대표선수로 선발되긴 했지만 병역문제가 걸려서 실제로 대회에 출전하지는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8) 강기석은 ‘62년부터 시험적인 경기를 갖기 시작한 태권도가 63년 제44회 전주 전국체전에서 처음 시범종목으로 참가했고, 64년 45회 대회 때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강기석(2001). 『태권도 반세기』, 국민체육진흥공단. 102쪽.)이라고 적고 있으나 63년 전주 전국체전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옳바르다.

한다⁹⁾. 지도관을 비롯한 전북 태권도의 겨루기가 그만큼 앞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때의 경기 용어 및 수신호 등도 전북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는 전북이 태권도 종목의 전국체전 정식종목화에 적지 않게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대한태수도협회의 경기규칙이 이전의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전북의 태권도는 거의 독무대라고 할 만큼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종합 1위의 성적을 냈다. 고산중과 전주고, 전북대는 각 부별 우승을 차지했고, 이는 1960년대 전북 태권도가 중흥의 시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전북의 태권도는 1960년대 전국체전과 각종 대회 등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며, 우리나라 태권도를 이끌었다. 이러한 성적은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태권도 겨루기는 위험한 운동이다. 항상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심한 경우 생명도 위협받는다. 따라서 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몸을 보호해줄 호구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호구(護具)는 1961년 전주에서 열린 한일전 때 일본팀이 가져와 사용한 검도용으로 알려져 있다.

태권도에 적합한 호구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졌고, 전주 지도관의 전일섭 관장과 유병용 사범 등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나온 것은 대나무를 사용한 호구였다. 대나무를 쪼개고 잘라서 세로로 배열하고 솜으로 주위를 감싼 뒤 베를 대고 누볐다. 바느질은 전일섭 관장의 부인이 맡았다. 신문으로 먼저 본을 뜬 뒤 입어보고 재단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등 뒤쪽은 비워두고 앞쪽과 옆구리까지만 가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구는 대한태수도협회의 승인을 받아 1962년 10월 대구에서 열린 전북과 대구 선수들 간의 전국체전 시범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된 뒤 1963년 전주에서 열린 44회 전국체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대나무 호구는 처음에는 위 아래로 2단으로 배열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2단 호구는 신체 활동의 제약이 심하고 부상의 위험성도 높았다. 위와 아래쪽이 연결되는 곳이 명치 부분이어서 자칫하면 심각한 장기손상 등의 불상사 우려도 있었다. 대나무를 감싸는 천이 고작 베(광목)로 허술한데다 대나무의 성질이 푹푹 부러지기보다는 꺾이면서 찢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경기를 하다보면 대나무가 광목위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선수들이 공격하다가 손발이

9) 이때의 득점방식은 정확한 가격을 하면 1점씩 주어졌다. 67년 3차 개정 때 점수를 차등화하여 발로 얼굴을 차거나 뛰어차기, 두발땅상, 뛰어 옆차기, 몸돌려차기 등은 2점을 줬다(서성원 (2014). 『태권도년』, 애니빅, 75-76쪽.)

피투성이가 되곤 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3단 호구였다. 전체를 위아래로 3개 단으로 나눠서 배열하다보니 신체 활동도 좀 더 편하게 되고, 대나무 조각이 길지 않아 부상 위험이 덜 했다. 그 이후에는 대나무를 더 잘게 쪼개서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배열하는 방식의 호구가 만들어졌다. 대나무 호구는 점차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경기를 하다보면 끈이 풀리거나 벗겨지는 등 적잖이 불편했다. 페인트로 색깔을 칠했는데, 홈팀은 청색, 원정팀은 빨강색을 입었다. 1975년부터는 대원기업이 개발한 PVC 재질의 호구를 사용하게 됐다.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전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도장 중심의 태권도가 점차 학교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도장의 사범들이 관원들 중에서 선수들을 뽑아 자의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에 나갔으며, 나중에는 태권도에 관심 있는 교사들의 주도로 도장의 사범들이 일선 학교에 파견돼 태권도를 가르쳤다. 전주고와 전주공고, 고산중, 전주상고, 전북대, 원광대 등에 태권도팀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경희대 태권도'의 주춧돌을 놓은 것도 전북의 태권도인들이었다. 1964년에 지도관 출신의 최영렬, 유기대 등이 경희대에 진학한데 이어 1966년에는 유형환과 최권렬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이후 경희대가 대통령기에서 3년 연속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금자탑을 쌓게 됐다.

초기 도장들은 극장 등을 빌려 시범을 하거나 전봇대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홍보했고, 입소문을 듣고 오는 학생들도 많았다. 볼거리가 별로 없었던 시절, 격파나 호신술 등을 위주로 한 연무시범은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택가 등의 전봇대나 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관원모집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태권도 경기가 계속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졌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도관은 전북은 물론 창무관 등 다른 관(館)에서도 수련의 강도가 높았다고 한다. 직접타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겨루기가 일반화됨에 따라 누적된 타격보다는 단 한 번의 발길질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이겨야 멋있어 보이고 제대로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초보적이긴 하지만 인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일발필살기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기술개발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강도 높은 단련이 뒤따랐다. 도장에서는 유단자들이 한 줄로 서고, 그 앞에 수련생들이 횡렬로 마주보고 선 다음 계속해서 상대를 바꿔가며 겨루기 하는 방식의 훈련도 있었다.

제 3 장 전북 태권도의 기여도

1. 경기화 이전 전라북도 태권도

전라북도 태권도의 뿌리인 연무관은 전상섭 관장이 1946년 3월 서울에서 ‘조선연무관 공수도부’를 개관했다.¹⁰⁾ 일본 유학생 출신의 전상섭 관장은 당시 경신중학교에서 선생으로 근무했다. 개관 후 첫 관원은 배영기였고, 두 번째로 입관한 관원이 전라북도에 태권도를 전파한 전상섭 관장의 동생 전일섭이다.¹¹⁾ 충청남도 출신으로 서울 성동중을 졸업한 전일섭 관장은 직장 때문에 전라북도에 정착한 인연으로 전라북도 태권도를 도입, 육성시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했다. 조선연무관을 태동시킨 전상섭 관장이 6.25 때 납북되어 그 업적이 미비한 반면 전라북도에서 활동한 전일섭 관장은 연무관을 지도관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조선연무관은 서울에서 태동했지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은 전북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관(支管)을 통해 이뤄졌다.”¹²⁾

군산에서 세관을 다니며 군산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던 전일섭 관장은 1955년 전주로 이사하며 전주 ‘종합체육관’ 태권도를 가르쳤다. 당시 종합체육관은 전주시 다가동 옛 삼백집과 옛 명동사우나 인근에 위치했다. 일제시대 일본 신사(神社)가 있던 장소로, 체육인들이 성금을 모아 종합체육관을 개관했다. 종합체육관은 단일 종목 체육관이 아닌 역도, 복싱 등 5개 종목이 시간대를 달리하며 훈련하던 복합 수련관이었다. 5개 종목에 대해 유병용, 종합체육관 1대 사범은 기계체조, 역도, 복싱, 태권도, 레슬링으로 기억한 반면 강영수, 전 전북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레슬링을 씨름으로 기억했다.

종합체육관에서 태권도 강습은 하루 세 번 이루어졌다. 오전 강습은 없이 오후에 1부부터 3부까지 세 번 실시했다. 강습대상이 주로 고등학생과 성인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교한 오후 4시부터 강습이 시작됐다. 이후 태권도 전용 체육관으로 분파되며 강습 시간은 증가됐다. 당시 한 부의 운동시간은 1시간으로 기본기, 품새, 겨루기 등을 배웠다. 전라북도 태권도 본관에서 독립한 지관들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 본관에서 1시간 강습했던 반면 지관들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됐다. 당시 전라북도 지역의 지도관에서 태권도 훈련방식은 한 명의 사범이 여러 명의 관원을 똑같이 지도하는 방식이 아닌 한 명의 사범과 여러 명의 유단자가 여러 명의 유급자를 일대

10) 강기석 (2001). "태권도 반세기". 『이야기한국체육사』 20, 국민체육진흥공단.

11) 강기석 (2001). "태권도 반세기". 『이야기한국체육사』 20, 국민체육진흥공단.

12) 강기석 (2001). "태권도 반세기". 『이야기한국체육사』 20, 국민체육진흥공단. 33쪽.

일로 지도하는 맞춤형 방식이었다.

태권도 협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6.25 전쟁 이전까지 겨루기 방식은 급소 앞에서 멈춰 실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대련¹³⁾ 형식으로 이루어졌다¹⁴⁾. 이에 반해 당시 전라북도 태권도는 약속대련보다 실제 겨루기 비중을 이루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도관의 대표적 지관인 전라북도 태권도에 입문하면 첫 한 달은 약속대련을 연마하지만 한 달 후 바로 실전 겨루기를 실시했다.

이러한 훈련방식은 태권도 경기방식에서 단체 승발전과 연결된다. 주로 지도관에서 사용됐던 단체 승발전(勝拔戰)¹⁵⁾ 경기방식은 “각 시도 대표선수들이 5명씩 나와서 체중과 상관없이 경기를 했다. 한 선수가 실력이 출중하면 상대편 5명 선수와 연이어 대결할 수 있었다.”¹⁶⁾ 승발전에서 쉬는 시간은 없었다¹⁷⁾. 전라북도 태권도 체육관에서 한 명이 여러 명과 차례로 겨루기를 실시하던 관행이 승발전의 경기방식과 유사하다. 승발전 방식의 훈련은 관원들의 겨루기 실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자신보다 상급자나 상위 체급의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겨룸으로써 스스로 기술을 향상시켰다. 즉, 전라북도 지도관에서는 다양한 상대와의 끊임없는 겨루기를 통해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됐다.

전주 종합체육관에서 다른 운동과 함께 수련하던 지도관은 태권도 전용 체육관으로 독립했다. 지도관은 태권도 전용 체육관 개관뿐만 아니라 시군에 태권도를 보급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시군의 태권도 보급은 겨루기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이르는 밑받침이 되었다.

2. 최초의 경기 규칙 제정에서 전북 태권도의 역할

무도의 경기화를 위해서는 경기규칙 제정이 필수적이다. 통일된 경기규칙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승패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경기규칙 제정의 의미는 경기규칙의 단일화를 통해 태권도가 경기화되었음을 의미한다¹⁸⁾. 태권도 경기화 초기 경기규칙은 개별 관별로 자체적으로 제정, 적용하였다. 태권도 원

13) 약속대련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고, 신체에 닿기 전에 멈추는 경기방식으로 한자로 ‘촌지방식(寸止方式)’, 일본어로는 ‘슌토메(寸止め) 방식’이라 부른다.

14) 김진경 (2014). 태권도 겨루기 경기화 과정에서 살펴본 경기장 시설 변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개인전이나 단체전에서 한 선수가 이기면 계속해서 상대편 다음 선수와 대전하는 방식. 네이버 지식백과.바독용어사전. 서립문화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99678&cid=55598&categoryId=55598>)

16) 태권타임 미디어, 2012. 02. 04. <논단> "1960년대 태권도 경기화 과정, 1950년대 말까지 '초지방식' 대련 성행". (<http://taekwonline.com/detail.php?number=2603&thread=>)

17) 한창효 (2000). 태권도 경기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한경화·신현규 (2011).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칙의 변천 요인. 대한무도학회지. 13(1). 1-12.

로 강원식 사범은 1960년대 초 처음 경기규칙이 제정될 때 상황을 “협회가 구성되면서 경기화 하자, 스포츠화 하자 이렇게 된 것이며, … 태권도를 스포츠화 하기 위해서 겨루기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겨루기를 하다 보니 심사 때 하는 것처럼 시범위주가 아니라 승패를 가려야 하니 경기규칙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1961년 한일무도 친선경기와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경기는 처음 제정된 경기규칙의 근거로 작용됐다. 한국과 일본 무도 친선경기는 1960년대 최초 국제 겨루기 대회의 모태로 한국 최초의 국제경기이다¹⁹⁾. 이 대회에서 한국 태권도와 일본 가라데 선수들이 출전해 승패를 겨뤘다. 당시 대회에서 한 경기는 가라데 경기규칙에 따라 진행되고, 한 경기는 전라북도 태권도 경기규칙에 따라 진행됐다. 대한체육회는 태권도 가입조건으로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용될 경기규칙을 요구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한일무도 친선경기와 국회의사당 시범경기에서 사용된 경기규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연스럽게 당시 실전 겨루기를 활발하게 연마하던 전라북도의 규칙이 자연스럽게 공식 경기규칙으로 제정되었다. 그 밖에 첫 태권도 경기규칙 과정에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통용되던 태권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1962년 제정된 최초의 경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 선수의 복장 : 호구 또는 도복착용
- 선수의 참가 자격 : 초기부(3급~초단), 중기부(2~3단), 고기부(4~5단)
- 경기종류 : 1. 개인전 2. 단체전 : 단체전은 5명의 정선수로서 체급 및 단의 제한 없이 실시
- 경기방식 : 승발전(개인별 진선계층식), 리그전, 토너먼트전
- 경기시간 : 1분 30초 2회전 중간휴식 30초
- 득점부위 : 명치 양옆구리 양어깨 안쪽(족기공격에 한함)
- 득점사항 : 수권공격 1점, 족기공격(면상) 2점, 그 외 1점 공격은 수권 1회 공격 후 족기 1회 공격 시 득점으로 인정하며 주심은 이외의 기술을 억제한다. 단, 연속 족기공격은 인정

출처 : 김동우 (2014). 34~35쪽 재구성

3. 태권도 기술 발전에서 전북 태권도의 역할

전라북도 태권도의 우수성은 겨루기 준비자세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라북도 겨루기 준비자세는 권투 경기 자세를 변형시킨 현재의 준비자세와 비슷했다. 전라북도 겨루기 준비자세는 실전에서 방어와 공격이 유용했다. 이 준비자세는 상대의 공격을 막은 후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현

19) 임신자 (2010). "태권도 경기 겨루기의 기술체계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9(4), 45-55쪽.

재의 태권도 겨루기 준비자세도 공격과 방어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긴다.

겨루기를 중심으로 한 태권도의 경기화는 일본 가라데와 다른 차별성을 이뤘다. 겨루기를 통한 경기화 과정에서 전라북도 태권도의 발기술을 빼놓을 수 없다. 1950~60년대 전라북도 태권도는 앞차기 위주의 빠른 공격을 많이 연마했다. 앞차기는 다른 기술에 비해 스피드가 가장 우수하다. 앞차기는 다른 준비 동작이 적고, 동선이 짧아 태권도 경기화 초기에 효과적인 득점방법으로 사용됐다. 강원식 전 국기원장의 증언에서 전라북도 태권도 앞차기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전북에서는 이미 1950년대 중반부터 겨루기 대회가 계속되면서 발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발을 이용한 공격이 주먹에 비해 파괴력이 4배가량이나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수련이 계속됐고, 조점선의 돌려차기, 박연희의 양발 앞차기(일명 따발총 공격), 유형환의 앞차기 등은 유명해졌다. 발을 활용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발차기를 그만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요한 발전이다. 발차기 기술은 오늘날에도 태권도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4. 경기화의 필수품, 호구(護具)

태권도 경기화 초기, 겨루기의 모습은 이와 너무 달랐다. 당시 태권도는 실전 무술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위협적인 운동이었다. 손과 발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타격하는 무술에서 보호장비가 없으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지만, 태권도 경기화 이전은 태권도 전용 호구가 없었다. 전라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실전 겨루기가 아닌 약속대련을 주로 시행했기 때문에 보호장비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실전 겨루기를 주로 행하던 전라북도 지도관의 경우 선수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가 절실했다. 1961년 한국과 일본 무도 친선경기 이후 박진감 넘치지만 선수의 부상도 방지할 수 있는 호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에 전일섭 관장과 유병용 사범은 배 가운데에 큰 대나무를 넣고 위 아래에 각각 작은 대나무를 넣은 형태로 호구가 완성했다. 이렇게 개발된 초기 호구는 1962년 10월 대구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시범종목 경기에서 실제로 사용됐다. 전일섭 관장과 유병용 사범은 호구의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들이 만든 호구를 견본으로 대한태권도협회와 지역 태권도협회에서 호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허락

했다.

3. 시범 발전에서 전북 태권도의 역할

태권도 시범의 역사에서 전라북도 장수 출신의 이규형 사범의 역할이 빼놓을 수 없다. 이규형은 장수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에 입문했다. “1974년 9월 6일에는 국기원이 상설 국가대표시범단을 창설했다. 창단 초기에는 성인 대표 시범단(단장 권경욱)과 어린이대표 시범단(대표 이규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다가 2년 후 합병됐다.”²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태권도 시범의 안무가가 이규형 사범이다. 서울 올림픽 개막식 태권도 시범을 위해 이규형 사범은 공연을 위한 음향개발과 표면마찰력을 높인 특수화를 제작했다. 8만 여명의 관장이 가득 찬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스튜디오에서 기합소리와 송판 부서지는 소리 등 시범과 관련된 소리를 녹음했다. 더불어 개막식 당일 우천에 대비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마찰력을 높인 시범화를 제작했다²¹⁾.

전라북도 태권도 시범의 시초도 지도관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전라북도 지도관 본관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시범단을 구성했다. 당시 전주시와 군산시, 무덕관과 창무관이 개관했던 이리시(현 익산시) 등 3개 시만 태권도가 보급된 상황이었다. 지도관은 각 시군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태권도 시범단을 활용했다.

전라북도 지도관에서 태권도 보급을 위해 시작된 시범단은 현재 전라북도 내 대학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전주대와 우석대, 전주비전대는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다. 태권도 시범단은 전주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행사에서 시범을 펼쳐 전라북도의 홍보대사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제 4 장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태권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태권도 발달과정에서 전라북도 태권도가 이바지한 기여도를 확인함으로써 전라북도 태권도의 위상을 정립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대한민국 태권도의 발전은 전라북도 태권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40년대 다른 지역보다 일찍 태권도를 받아들인

20) 강기석 (2001). 태권도 반세기. 이야기한국체육사 20. 국민체육진흥공단. 189쪽.

21) 1986년 아시안게임 개막식 당일 비가 내려 운동장 바닥이 미끄러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범화를 제작했다.

이후 실전 겨루기를 지향하면서 실용 무도로서 선도해 나갔다. 이러한 겨루기 중심의 수련 방식은 태권도의 경기화의 기본 토대를 구성하였다.

전라북도에서 태권도는 1947년 군산에서 전일섭 관장이 연무관 지도관을 열며 서울, 경기를 제외한 다른 시도보다 이르게 도입되었다. 태권도 도입 초기 전라북도 지도관은 기본자세와 품새뿐만 아니라 겨루기를 중점적으로 수련하였다. 당시 다른 지역은 상대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지 않는 약속대련이 주를 이뤘다. 반면 전라북도 지도관은 상대방을 실제 가격하는 실전 겨루기를 통한 실력 향상을 꾀했다.

태권도의 경기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한태권도 협회는 겨루기에서 승패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경기규칙이 필요했다. 협회의 요청을 받은 전라북도 지도관의 전일섭 관장과 유병용 사범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규칙을 제출했고, 이후 대한체육회는 수정을 거쳐 공식규칙으로 채택했다. 전라북도의 겨루기 규칙은 1961년 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한일 무도 친선경기에 기반을 두었다. 당시 전라북도 태권도의 경기규칙은 국제경기에서 적용될 만큼 타당성이 인정받아 정식 규칙으로 공인받았다.

태권도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호구이다. 태권도의 경기화는 필연적으로 선수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비가 필요하다. 전라북도 태권도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나무와 솜, 천을 이용한 호구를 직접 개발하였다. 인간의 급소 부위를 보호하는 호구의 개발은 유효한 득점을 가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태권도는 시범을 통해 세계화를 이뤘다. 전라북도 장수 출신의 이규형 사범은 서울 미동초등학교 태권도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시범단으로 성장시켰다. 이에 더해 이 사범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막식의 안무가로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러한 전통은 전라북도 내 대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대학들은 시범단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서 시범을 펼치고 있다. 더 나아가 태권도를 뮤지컬 등 공연화함으로써 예술의 반열로 이끌고 있다.

2 주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무예의 의미

김 산 전북대학교 교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무예의 의미

제1장 서론

2011년 11월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인류문화유산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택견과 줄타기, 한산모시의 등재가 결정되었다.

택견과 줄타기, 한산모시가 등재되기 이전인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필두로 2003년 판소리, 2005년 강릉단오제, 2009년 영산재와 남사당놀이,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강강술래, 처용무, 2010년 가곡, 매사냥, 대목장이 등재되어 있었다. 2011년 세 종목이 등재된 이후에도 2012년 아리랑, 2013년 김장, 2014년 농악, 2015년 줄다리 등이 등재되었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여러 무형 문화들은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인류의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 문화로 보호, 보존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택견을 비롯한 우리의 다양한 문화들이 2001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화성과 같은 세계유산을 승정원일기, 동의보감과 같은 세계기록유산 등에 등재되는 것에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이는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분위기에서 본고는 체육분야 중 전통 무예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 특히 인류무형문화 유산의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 전통무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전통무예가 가질 수 있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장 유네스코와 인류무형유산

1. 유네스코

유네스코(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연합(UN)의 전문 기구로서, 정확한 명칭은 ‘국제 연합 교육 · 과학 · 문화 기구(國際聯合教育科學文化機構,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다.

유네스코의 창설은 두 차례 세계 대전을 통해 진정한 세계 평화는 인류의 지적 · 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전격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연합국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기로 뜻을 모아 1945년 유네스코가 창설된 것이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지식과 정보를 전 세계에 보급하며,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역할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의 중점 추진 목표를 가진다.

- 만인을 위한 질 높은 평생 교육
- 지속적으로 개발 가능한 유동적인 과학지식과 정책
- 사회적, 윤리적 도전에 역점
- 포괄적인 지식 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통

이 목표에 따라 문맹 퇴치율을 향상시키거나, 의무 교육의 보급을 위한 활동, 그리고 **세계 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의 등록과 보호, 문화 다양성 협약의 채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 유산을 보전하는 세계의 기억 사업 등을 실시한다. 그 외, 극도의 빈곤 근절,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초등 중등 교육에서의 남녀 차별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천년개발 목표 등 국제 개발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사업 중에 본 논고와 관련 있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류무형문화 유산은 장을 나누어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세계유산에 대한 한국유네스코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세계유산이란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이다. ‘세계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문화유산

기념물: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자연유산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

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¹⁾

다음으로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내용이다.

사업배경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 사업을 설립하였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의 보존에 대한 위협과 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쟁과 사회적 변동, 그리고 자원의 부족은 수세기동안 존재해온 문제를 악화시켰다. 전 세계의 중요한 기록물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중에는 약탈과 불법거래, 파괴, 부적절한 보호시설, 그리고 재원 등이 있다. 많은 기록유산이 이미 영원히 사라졌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다행히도 누락 된 기록유산이 재발견되기도 한다.

목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MOW 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최적의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을 돕는다.
- 기록유산의 보편적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제고한다.

대상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단독

1) <http://heritage.unesco.or.kr/>

기록일수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수도 있다. UNESCO는 1995년에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 예)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자료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2. 무형문화유산²⁾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³⁾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왔다.⁴⁾⁵⁾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2) 이 내용은 허건식(예원예술대)의 「태권도, 인류무형유산으로 가는 길」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3)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 문화 공간

4)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 기술

5)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편으로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창설 이래 문화유산의 보호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제협약의 제정, 국제회의 개최, 자료 발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제정하고 세계기록유산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세계적 가치를 지닌 유산들이 개별국가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꾸고 보존하여야 할 인류의 공통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은 언어나 의상, 전통, 사회를 형성하는 방법, 도덕과 종교에 대한 관념, 주변과의 상호작용 등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말한다.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풍요한 자산으로서 이를 보호, 증진, 유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문화의 획일화, 상업화, 종속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다원적 가치를 상호 존중함으로써 민족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1차 유네스코 총회 (2001년)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고 제33차 총회 (2005년)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채택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문화사업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선언과 협약의 내용은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다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적절한 문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또 문화다양성의 진흥이야말로 이러한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 걸작 선언⁶⁾은 2001년 5월에 제 1차로 시작하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 심사 위원회에서 매 2년마다 선정된다. 18명의 심사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 심사 위원회에서 고려한 선정 기준으로는 문화적 가치 및 전통의 뿌리, 문화적 정체성, 문화 간 교류 촉진,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적·문화적 역할, 기능 및 기술 응용의 탁월성, 독특한 문화적 전통,

6)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소멸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의 사업전략은 구전 및 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강화에 개인 및 단체, 각종 조직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다.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 1) 각 회원국에 무형 문화재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위원 선정 권고
- 2) 구전 및 무형 문화재 선언문과 관련하여 행동 강령을 수립한 지역 단체 및 지역 조직 보조의 중요성 강조
- 3) 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구전 및 무형 문화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 4)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활동에 관한 최근 정보 고지
- 5) 확실한 재정 보조 체계 수립

이러한 활동자와 수혜자는 반드시 개인 혹은 단체의 창조자, 혹은 문화재 보호 단체여야 한다. 수혜자는 가능한 한 문화적 표현의 보존과 재창조를 위해 설립된 지역 단체나 비정부기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전 및 무형 문화재에 관한 제 1차 선언은 일본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제 1차 선언을 통해 회원국의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한 영구적인 재정지원 확보와 사무국 인적 자원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선언문 관련 사업의 지속을 위해 재정보조 체계의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회원국이 제공하는 신탁기금 및 포상금 등은 일차적으로 후보 명단준비보조에 사용하고, 이후 문화재 보호 계획 실천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산 외 자금은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방안의 실천에 도움이 된다.
- 무형 문화재 보존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취합한 특별 자금의 조성도 가능하다.

무형 문화재는 문화적 정체성과 창조성의 증진, 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의 핵심 요소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아왔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지정하는 동 사업은 정부

와 각종 단체, 지역 공동체 등에 구전 및 무형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 홍보 등을 촉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형 문화재를 위한 동 제도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사업이 유형·무형의 분야에서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구전 및 무형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고양시키고, 이러한 문화재들의 보존과 재생에 관한 즉각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국제적 의견을 수렴한다.
- 지역 사회의 요구를 고려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의 현 상황을 파악한다.
- 각 회원국에 무형 문화재 관련 목록의 작성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 문화재의 발굴, 보존, 재생에 관해 다양한 수준의 지역 창조자 및 개인·단체 기술 보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3. 유네스코 무형유산 관련 기구

가. 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역할

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된 24개국으로 구성된다. 위원국의 임기는 4년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12개국이 새로 선출된다. 위원국들은 유네스코의 지역 구분에 따라 나누어진 여섯 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협약 가입국 수에 따라 배정된 의석 수만큼 선출된다. 다만, 지역별 균형을 위해 지역별로 최소 세 개 의석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국들은 무형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를 각국 대표로 지명하여야 한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무형유산위원회는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할 유산을 최종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

다. 이 밖에도 협약 이행 지침 및 무형문화유산기금 사용지침 등 각종 주요 지침을 작성, 검토해 총회에 제출하며, 위원회 자문 비정부단체를 총회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으로 협약내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 제9차 무형유산보호 정부 간 위원회 현황 (2014년 1월 기준)

- 의장 : Mr. Jose Manuel Rodrigues Cuadros (페루)
- 부의장국: 벨기에, 라트비아, 나미비아, 키르기스스탄, 이집트
- 보고관 : 나미비아

지역구분	국 가 명	임 기
지역 1(서구, 북미)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2012-2016 2012-2016 2010-2014
지역 2(동구)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체코공화국 라트비아	2010-2014 2010-2014 2010-2014 2012-2016
지역 3(중남미)	브라질 그레나다 나카라과 페루 우루과이	2012-2016 2010-2014 2010-2014 2012-2016 2012-2016
지역 4(아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키르기스스탄	2010-2014 2010-2014 2010-2014 2012-2016
지역 5(a)(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2010-2014 2010-2014 2012-2016 2012-2016 2012-2016
지역 5(b)(아랍)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2012-2016 2010-2014 2012-2016

나.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총회의 역할

무형문화유산협약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로 구성된다. 무형문화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모두 156개국(2013년 12월 현재)이다. 총회는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협약 이행 실행지침 및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무형문화유산 기금 사용지침,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 자문기구로 활동할 비정부 단체 등을 최종 승인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국을 선출하는 일도 총회 주요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다. 유네스코 NGO, 기관, 전문가의 역할

NGO, 전문가, 전문 연구기관 등은 무형유산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정의에 NGO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권고되는데, 이는 NGO들이 유산 공동체와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인가 NGO들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정부간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156개 기관이 인가 NGO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의 인가 NGO로는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세계무술연맹(WoMAU) 등이 있다.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 당사국은 유산 공동체, 단체, 관련 개인, 전문가, 기관 등의 참여를 진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특히 유산의 발굴과 정의, 인벤토리 작성,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진행, 목록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업 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6명의 인가 NGO 대표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1년 임기(재임 가능)로 구성하여 긴급보호목록 등재 심사와 모범사례 제안서 심사, 미화 25,000불 이상의 국제원조 신청 심사 등을 위임하고 있다. 자문기구는 심사 후 등재 또는 허가 등과 관련된 권고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라. 무형문화유산 사무국의 역할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사무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과가 담당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과는 협약 총회, 무형유산위원회 등 각종 회의 준비 및 문

서 작성, 연락 및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한다.

무형문화유산과는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방안, 무형유산위원회 자문 비정부단체 등록 방안, 각종 신청양식 안내 등 협약 사업에 관심있는 국가와 단체, 개인에게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협약 가입 독려 및 위기에 처한 언어 보호 사업 등 협약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4.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사업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가지 무형유산 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이며, 두 번째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이다.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되면서, 더 이상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은 따로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선정된 걸작들은 모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시켰다.

긴급보호 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대한 세부지침을 논의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 두 가지 목록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었다.

무형유산협약에는 대표목록 관련 조항이 긴급보호목록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산업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직면한 무형유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협약의 진정한 취지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에 따라 운영지침에서는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의 순서를 바꾸고, 긴급보호목록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등재절차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국제원조의 대부분을 긴급보호목록상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표목록은 각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집과 비슷하다. 즉, 각국이 자국의 국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 가운데 관련 공동체 등의 동의와 기타 등재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한대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많은 국가들은 긴급보호목록을 세계유산사업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과 같이 인식하고, 국가가 해당 유산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보호목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전승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무형유산의 경우에도 가능한 긴급보호목록보다는 대표목록에 등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문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 집중된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세 국가의 무형유산이 10건 이상으로 많고, 이외 국가들은 보통 1~2건 정도 등재했다. 신청한도를 철폐하면서 대표목록 신청건수가 많아지자 이에 따른 업무량 증대 역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2012년 이래 유네스코의 재정위기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자, 무형유산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매년 심사수량은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 국제원조 신청 등 총 60여건 정도로 조율하고 있다.

5.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과 절차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특성(무형유산협약 제2조)에 따라 언어 그 자체나 인권에 관한 국제규범에 반하는 전통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기준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험에 처해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준 3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5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6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 이와 별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인 경우 무형유산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에 등재할 수 있음.

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

기준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 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 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무형유산 등재 절차는 무형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긴급 보호무형유산목록 또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무형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단계	마감일	내용
1. 준비 및 제출	준비년도(신청 전년도) 3월 31일	제출 준비를 위한 국제원조 신청
	1차년도 3월 31일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1차년도 6월 30일	신청서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공지
	1차년도 9월 30일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2. 심사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심사
	2차년도 4월 ~ 6월	최종심사 회의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3. 결정	2차년도 11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심사위원은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 전문 연구소 및 단체, 비정부단체(NGO) 가운데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

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과정

단계	마감일	내용
1. 준비 및 제출	1차년도 3월 31일	신청서 사무국 제출 마감.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해에 심사
	1차년도 6월 30일	신청서 검토 및 보완필요사항 공지
	1차년도 9월 30일	당사국의 신청서 보완 마감.
2. 심사	1차년도 12월 ~ 2차년도 5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심사
	2차년도 4월 ~ 6월	최종심사 회의
	매년 국가간위원회 몇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3. 결정	2차년도 11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대표목록 등재 심사보조기구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산하 기구로서 24개 위원국 가운데 각 지역별로 1개국씩 전체 6개국으로 구성된다.]

라. 심사보조기구 위원국

지역구분	국 가 명	임 기
지역 1(서구, 북미)	그리스	1년(2014)
지역 2(동구)	라트비아	
지역 3(중남미)	페루(2013년 연임)	
지역 4(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지역 5(a)(아프리카)	나이지리아(2013년 연임)	
지역 5(b)(아랍)	튀니지	

제 3 장 전통 무예⁷⁾

다음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으로 등재된 택견과 같은 전통무예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무예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맨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사냥이나 전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원초적인 신체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용하는 도구가 석기에서 청동기, 철기로 발전하면서 무예의 요소도 단순한 동작에서 점차 복잡하게 되었을 것이며, 큰 규모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그 기술을 교육을 통해 일반화 하려는 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해왔을 것이다.

사냥이나 전쟁은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 된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민족들에게서 진행되었으며, 무예의 교육적 체계 과정에서 각 민족의 정서와 특징이 배어 있는 몸짓의 무예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무예를 전통무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무예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알아보자.

우리나라 전통무예진흥법(제2조 제1항)에서는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무예진흥 기본 계획」(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전통게임(Traditional game)을 100년으로 규정한 유럽평의회 특별조사위원회(Working group of Council of Europe)의 기준을 참고하여, 100년간 3대 이상 전승되었으며, 타인 및 타 무예에서 인정하는 것을 ‘전승무예’로 판단하였다.⁸⁾

아마도 ‘전승’은 일반인들이 ‘전통’ 이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한 표기인 듯하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은 1900년대 초이다. 따라서 이 견해를 따른다면 국내의 전통무예는 적어도 이때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견해는 합리적인 것일까. 이를 위해 전통무예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자. 전통무예는 ‘전통’과 ‘무예’가 합쳐진 말이다. 따라서 전통의 개념과 무예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용어이다.

먼저 무예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무예는 무(武)와 예(藝)가 합쳐진 말이다.

7) 본 내용은 허인욱(고려대)의 「전통무예의 기준과 그 가치」를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8)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 기본 계획」(최종보고서) 2010년 6월, 10쪽.

무(武)의 뜻에 대해서는 ‘지과위무(止戈爲武)’라 하여 ‘싸움을 그치게 하는 것이 무이다’라고 이해하거나 지(止)가 보(步)이므로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⁹⁾ 이 두 가지 견해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글자의 기원과 이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의한 변화에서 비롯된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즉, 문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창을 들고 나가는 힘찬 모습을 형상화하며 그 뜻을 담아내고자 했다면, 문화가 발전하면서 정당한 힘으로 불합리한 폭력을 저지한다는 의미로 전환된 것이다. 단순히 육체적인 강함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혹은 철학적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무예의 예(藝)는 어떤 의미일까. 예는 곧잘 술(術).도(道)와 비교 대상이 된다. 술은 재주나 기술을 의미하며 따라서 실용적 목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도는 정신적 또는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무예는 미적인 면을 강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무술에서 무예로 그리고 무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예는 예술적인 면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무예와 흔히 대비되어 사용하는 용어는 ‘문예’이다. 문예와 무예는 ‘문.무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서로 대비되면서도 보완해 주는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칭되고 있다. 정반대의 용어가 아닌 것이다.

예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공자의 육예(六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자는 사인들의 기본적인 교양으로 필요한 것을 육예라고 하였는데, 육예에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여섯 가지를 지칭한다. 이 가운데 서는 글공부, 예는 도덕공부, 악은 감성공부, 수는 실용 공부를 말한다. 공자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공부인 활쏘기인 사와 말타기 혹은 수레몰기인 어도 육예의 내용으로 삼았다. 육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교양이었다. 무예 또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공부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예로 김제에 전해지고 있는 태격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적어도 사서삼경을 공부한 이후에서야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무예는 교육적 측면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무예는 단순히 싸움의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몸 공부를 의미한다. 물론 몸을 닦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까지 포함한 것이다.

9) 金正幸 외, 『武道論』, 대한미디어, 1997, 42쪽.

전통(傳統)은 현재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사용된 용어이다. 과거에는 전통의 뜻은 지금과 달리 ‘계통을 받아 전한다’거나 ‘대통을 전수한다’는 의미 정도였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전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전통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기준으로 현대와 대비되는 과거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대’, ‘전통미술’, ‘전통공예’ 등이 그러한 예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계승해야 할 과거의 좋은 관습이라는 뜻이다. 버려야 할 인습을 제외하고 미래로 이어져야 할 문화적 요소들을 일컫는 경우다. ‘유구한 문화전통’이나 ‘전통의 재창조’와 같다는 것이다.¹⁰⁾ 전통무예도 이와 유사하게 받아들인다고 여겨진다. 현대에 들어와 만들어진 무예와 대비되어 예전부터 기법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기법으로, 미래로 이어져야 할 훌륭한 기법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무예는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계승해야 할 유무형의 가치를 담은 무(武)적인 기술 수련체계를 의미한다.

무예의 교육체계에서는 먼저 무적 기술 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쌓고 기술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검이나 창을 사용하는 무예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먼저 검이나 창을 잡고 사용할 수 있는 근육과 운동신경을 만들어야 한다. 즉 검이나 창을 자기의 무예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근육을 만드는 것이다. 신체적 기본요소가 된 다음에는 검이나 창을 사용하는 기술의 개념과 이를 현실화 하는 숙련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현대 스포츠나 다양한 신체문화 역시 무예의 교육체계와 같이 그 종목을 잘 할 수 있는 몸만들기, 힘 키우기, 힘쓰기는 숙련도를 높이는 체계로 되어있다.

이 세부분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숙련자가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구성된 교육체계 또는 수련 체계 전반을 무예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몸만들기나 힘 키우기에는 현대적 웨이트트레이닝과 같은 과부하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도구는 그 무예가 형성된 민족들이 사용하던 생활도구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재는 추나 농기구와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

10) 조인수, 「한국 전통미술의 재발견」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인물과 사상사, 2010, 127~128쪽.

이러한 실제 기술을 사용할 때는 각 민족의 특색있는 몸짓을 사용하면서 다른 민족의 무예들과의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문화란 어느 한 지역에서 만 생기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무예는 전투나 전쟁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치른 상대방의 기술체계라도 사용하기 좋으면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와 접촉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武藝圖譜通志』이다. 이 서적은 정조 14년(1790)에 왕의 명에 의해 24가지 무예기술을 정리하여 만든 책으로 현재 많은 전통무예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많이 인용하는 기록유산이다. 그러나 이 서적에 수록된 24가지 무예 중 본국검, 예도, 쌍검, 마상재, 격구, 기창(騎槍)과 같이 조선에서 기인한 무예이나, 길이가 긴 장창, 죽장창, 낭선, 당파, 기창(旗槍)과 쌍수도, 제독검, 등패, 권법 등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우러왔던 명나라군사에서 기인한 무예이며, 왜검, 왜검 교전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공격해 왔던 왜의 무예들이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1592)이라는 사건에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만난 조선, 명, 왜 삼국의 전쟁 속에서 시작하여 약 200여년 정리되며 형성된 살수 무예가 바로 『무예도보통지』인 것이다.

즉 다양한 신체문화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무예라는 신체문화가 발전하고 풍부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무예인 태권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근대 태권도라는 무예문화가 형성되면서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유학한 초기 관장들이 배운 카라테(空手道, 唐手道)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태권도가 전해지기 전부터 있던 한국의 무예문화의 바탕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특히 직접 가격하는 겨루기의 개발은 일본의 카라테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 한국무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보자.

현재 태권도 역사와 관련된 논문들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무예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태권도의 시작이 가라테(空手)로부터 시작됐다는 데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는 것이다.

전자는 삼국시대 화랑이 하던 한국의 전통무예가 면면히 이어져서 현재의 태권도가 되었다는 견해이고,¹¹⁾ 후자는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이 카라테(空手)를

해방 후에 국내에 보급했고,¹²⁾ 이후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화(韓國化)되어 태권도가 되었다는 것이다.¹³⁾ 물론 이 견해 또한 현재의 태권도는 경기태권(競技跆拳道)이 되면서부터 카라테로부터 탈피해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무예가 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해 우리나라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¹⁴⁾ 하지만, 후자의 견해는 그 동안에 무비판적으로 태권도는 화랑이 하던 무예라는 인식을 가지고 수련하던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더구나 일본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태권도의 전통성 및 정통성에 많은 상처를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태권도가 삼국시대 화랑이 하던 무예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은 일찌감치 제기되었다.

흔히 당수(唐手) 또는 가라데(공수)라면 삼척동자에 이르기까지 향간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태권도라면 아직 사도(斯道)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사들에겐 별로 주지되어있지 않다. 또한 비록 알고 있더라도 사도를 일본 혹은 중국의 외래무술인양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 태권도는 어디까지나 이 나라 고유의 무술이다. 그 연혁을 더듬어 보면 사도가 하나의 독자적인 민족 무술로서 체계화되기는 6세기초엽 삼국시대부터이다. 더욱이 신라에서는 진흥왕(眞興王)조에 이르러 「태권」이란 이름으로 당시 신라사회풍조를 지배하였던 화랑도(花郎徒)들에 의하여 널리 성행되었다.¹⁵⁾

이 글은 1962년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신라의 화랑들이 ‘태권’이라는 명칭으로 하던 무술이므로, 일본이나 중국의 외래무술이라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 기사의 요지이다. 태권도가 전통무예임을 강조하는 것은 앞서 일본이라는 나라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생성된 것이다.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은 우리 민족에게 가라테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국민 정서상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태권도가 가라테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인

11) 현재까지 태권도사와 관련된 글에서는 대개 이 견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견해와 관련해서는 崔泓熙 『태권도 교서』(정연사, 1972)과 趙浣默의 「태권도사」(『계간 태권도』 1·2호, 1971), 金光成·金耕知의 『韓國跆拳道史』(慶雲出版社, 1988), 최영렬·전정우의 「태권도사 정립방향에 대한 고찰」(『체육과학논총』 10, 1997), 이창후의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상아기획, 2003) 등이 있다.

12) 이와 관련해서는 이호성의 『한국무술 미대륙 정복하다』(스포츠조선, 1995)와 강원식·이경명의 『태권도 現代史』(보경문화사, 1999) 그리고 강기석 『태권도 半世紀 인물과 역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01) 등의 단행본이 참조된다. 이 단행본들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술했다기보다는 태권도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소박하게 서술하고 있다.

13)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楊鎮芳의 『解放以後 跆拳道의 發展過程과 그 歷史的意義 - 競技 跆拳道를 中心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와 김용옥의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통나무, 1990)가 있다.

14) 태권도사 기원설에 따른 분류는 정용익의 『현대 태권도사 정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문헌적 연구』(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3, 78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15) 『경향신문』 1962년 10월 30일, 「民族武術로서의 跆拳道의 由來」.

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태권도가 가라테의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태권도가 발생하게 되는 그 시발점에 있는 이들 가운데 분명히 가라테를 배우거나 접한 이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도관을 세운 이원국과 송무관을 창설한 노병직은 후나고시 기친(船越義珍)으로부터 카라테를 배웠으며, 조선연무관의 전상섭은 ‘미야기 초오준(宮城長順)’이나 ‘도야마 간켄(遠山寬賢)’으로 부터 카라테를 배운 것으로 추정되고, 윤병인은 도야마 간켄과 동등한 입장에서 무예를 교환하기는 하였지만 기법을 알고 있으며, 무덕관을 세운 황기 또한 가라테 교본 등을 바탕으로 가라테를 수련한 것을 사실이다.

5대 모체관의 관장들이 모두 가라테 기법을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당시 각 관에서 철기(鐵騎).십수(十手).오십사보(五十四步).노하이(鷺牌).공상군(公相君) 등의 형을 수련하고 있었다는 데서도 가라테를 배웠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1962년 11월 11일 최초의 승단심사 과목(표 1. 참조)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국내 최초의 태권도 관련 교본이라 할 수 있는 황기의 『화수도교본』(1949)에도 평안(平安).나이한찌.짚데.뺏사이.찢도 등이, 박철희의 『파사권법』(1958)에도 평안, 기마.십수.노하이 등의 가라테 형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태권도 형성에 가라테의 영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초단 지정형	평안(平安) 오단형(五段型).철기(鐵騎) 초단형(初段型).내보진(內報進) 초단형(初段型).자원형(慈院型).화랑형(花郎型)
2단 지정형	발한형(拔翰型) 대(大).철기(鐵騎) 이단형(二段型).내보진(內報進) 이단형(二段型).기마(騎馬) 이단형(二段型).충무형(忠武型)
3단 지정형	십수형(十手型).발세형(拔歲型).연비형(燕飛型).단권형(短拳型).노패형(鷺牌型).계백형(階伯型).을지형(乙支型)
4단 지정형	철기(鐵騎) 삼단형(三段型).내보진(內報進) 삼단형(三段型).기마(騎馬) 삼단형(三段型).자은형(慈恩型).진수형(鎭手型).암학형(岩鶴型).진동형(鎭東型).삼일형(三一型).장권형(長拳型)
5단 지정형	공상군형(公相君型).관공형(觀空型).오십사보형(五十四步型).심삼형(十三型).반월형(半月型).팔기권형(八騎拳型)

표 1. 대한태수도협회 제 1회 심사 지정형

(강원식 · 이경명의 『태권도 現代史』, 보경문화사, 1999, 45~46쪽에서 인용)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태권도를 가라테의

한 파 혹은 가라테의 변형, 심하게는 가라테의 짝퉁이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는 그 동안 비판이 일절 허용되지 않았던 ‘태권도는 화랑으로부터 내려오던 무술’이라는 ‘태권도 전통무예계승론’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점은 역으로 태권도에 애정이 있었던 이들이 그만큼 이에 대한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태권도의 ‘가라테파생론’, 심지어는 ‘가라테짝퉁론’ 까지 이야기될 정도로 태권도는 가라테의 영향만

을 받았을까.

태권도 형성에 가라테 기법의 영향만이 전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은 앞서 가라테의 영향이 존재했다고 증거로 삼았던 기록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표 1>의 대한태수도협회 심사 지정형을 보면, 가라테 형이 아닌, YMCA권법부의 단권형(短拳型).장권형(長拳型).팔기권형(八騎拳型) 등이 있었으며, 오도관(吾道館)의 화랑형(花郎型).충무형(忠武型).을지형(乙支型) 등의 창작 품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화수도교본』에도 소림장권이, 『파사권법』에 단권(短拳: 攻撃型.防禦型).장권(長拳: 攻撃型.防禦型).토조산(攻撃型.防禦型).태조권(太祖拳).팔기권(八騎拳: 攻撃型.防禦型) 등이 기재되어 있다.¹⁶⁾ 『파사권법』에 기재되어 있는 형들은 중앙기독교청년회(YMCA)권법부의 창설자인 윤병인이 만주에서 몽골계 선생으로부터 배운 권법으로, 윤병인이 6.25 기간에 실종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권법들이다. 그는 이 외에도 봉술(棒術)이나 도술(刀術) 등의 무기술도 가르쳤으며, 이 형들은 현재도 일부에서 전승이 되고 있다.

가라테 외에 다른 무술의 영향이 있었음은 무덕관을 세운 황기의 사례도 있다. 그는 1935년 남만주 철도국에 입사해 그 곳에서 국술(國術)을 배웠는데, 그가 배운 것은 앞서 언급한 소림장권 외에 담퇴와 태극권 등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해 태권도 원로들은 그의 무력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¹⁷⁾하여 부정하고 있지만, 황기가 하나의 관을 세울 정도라면 그가 어떤 종류의 무예를 수련했음은 부정할 수만은 없다.

여하튼, 해방 즈음의 시기에 나중에 태권도로 통합되는 ‘관(館)’을 세운 이들의 무예는 오키나와로부터 유래된 가라테와 더불어 만주 지역의 무예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태권도 형성에 가라테만이 영향을 준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견해가 아님을 의미한다. 아울러 모든 문화의 전파가 그렇듯이, 오키나와 가라테 수련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기독교청년회(YMCA)권법부의 경우에는 가라테에 비해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졌으며, 힘을 짜는 방법도 달랐다. 특히 모든 가라테 형들의 차기는 앞차기로 바뀌어서 수련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창설자 윤병인의 독자적인 수련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⁸⁾ 가라테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청도관의 경우에도 옆차기 등에서 가라테에서 보이는 옆차기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라테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한국인들의 체질

16) 朴哲熙, 『破邪拳法』, 一文社, 1958, 39~40쪽.

17) 姜원식·이경명, 『태권도 現代史』, 보경문화사, 1999.

18) 2007년 6월 30일 지승원과의 인터뷰. 가라테형의 옆차기가 모두 앞차기로 바뀌었음은 윤병인의 직제자인 박철희의 『破邪拳法』, 一文社, 1956에 수록되어 있는 가라테형의 연무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 맞게 변형되었음을 말해준다.

태권도의 전통무예론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택견으로부터 이어진 무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태권도라는 명칭을 작명한 최홍희가 태권도의 명칭을 택견에서 가져왔다는 사실 때문에 택견과의 관계가 자연스레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방 후 각 관의 창시자들이 모두 택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청도관 창설자 이원국의 말을 보자.

도장을 열기 전 한달 쯤 전인 8월 어느 날 이용은 장충단 공원에서 김씨 성을 가진 노인이 땅바닥에 2m쯤 간격으로 작은 구멍 세 개를 삼각형으로 파 놓고 이를 차례로 짚고 뛰면서 차기 연습중인 것을 목격했다. 김노인에게 물으니 그것이 「태견」이라 했다. 이용은 그 뒤에도 몇차례 그를 만나면서 우리 고유무술에 태견이란 것이 있음을 알았으나 김노인이 얼마 뒤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만남은 지속되지 못했다. 그는 『그것이 「태견」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말했다.¹⁹⁾

이원국은 택견의 동작을 보기는 했지만, 그 기법을 익힌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는 택견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택견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최홍희이다.

(한일동) 선생은 또한 주로 발만 쓰는 택견 무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아버지 못지않게 나의 약질을 염려해 틈이 날 때마다 무용담을 들려주며 담력을 키워주고, 원시적이긴 했지만 택견의 초보적인 기술도 몸소 가르쳐 주었다.²⁰⁾

나는 선천적으로 약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택한 무술은 6세기 때 신라에서 기원한 택견과 1922년 5월 일본에 소개된 당수였다……그 후 근 10년 간 발만 쓰던 택견과 주로 손의 기술에만 의존하던 가라데를 종합 연구하여 오늘과 같이 체중에 구애됨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무도로 발전시킨 다음……이름을 태권도로 단일화하게 되었다.²¹⁾

이 두 기록은 최홍희의 자서전과 『태권도교본』에 나오는 택견 관련 기록이다. 그는 자서전에서 서예 스승인 한일동으로부터 택견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던

19) 權泰東, 「宗主國이 쫓아냈던 跆拳道始祖 李元國翁」 『月刊中央』 1994년 12월호, 中央日報社, 316쪽.

20) 최홍희, 『태권도와 나』 1, 사람다움, 1997, 36쪽.

21) 崔泓熙, 『태권도 교서』, 정연사, 1972, 서문.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며, 『태권도교본』에서는 택견과 가라테를 배웠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태권도 발기술 형성에 택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해된다. 물론 이 언급이 사실 여부는 분명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흥희는 택견의 발기술을 배운 적이 없다고도 증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²²⁾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많은 발기술이 태권도에 가미된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오던 전통적인 발기술의 영향이 있었음은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최흥희 외에 택견과 관련해서 언급한 이는 황기이다. 그는 그의 저서 『당수도교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저자는 해방전부터 우리나라 독특한 무술인 「태권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모든 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투신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나라 「태권법」과 중국의 「십팔기법」(국술) 오끼나와(충승)의 「가라테」등에 대한 다소나마 지식과 기술법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는 그 자신이 택견 기술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직접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수박도대감』에서 사도(斯道)로 지칭되는 무술계가 차기에 있어서 택견의 영향을 받았음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조말엽에는 순족기(純足技)만으로 되어 있는 『태권』이라는 것이 실존하여 현재 생존한 고령자 중에는 실제로 습득한 사람도 있고, 실기를 본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태권』은 의의 있는 도(道)나 무예로 취급받은 일이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들의 사도의 기술면에 있어서 특히, 족기(足技)에 있어서 다대한 교훈을 받았고 또 모체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²³⁾

무덕관에서 발기법이 수련되었음은 해방직후인 1945년 11월 무덕관에 입문한 김인석이 ‘당시 관장이었던 황기는 족기(足技)를 많이 가르쳤다’²⁴⁾는 증언을 통해서도 무덕관에 발기술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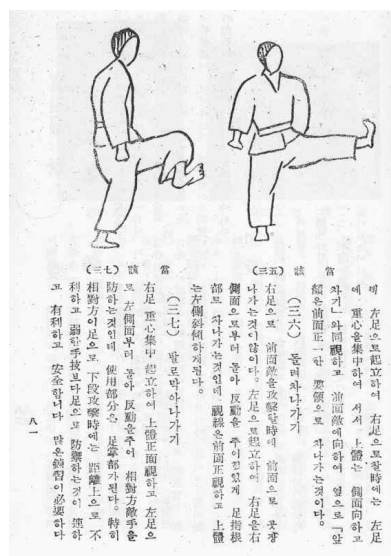


그림 1. 1949년 발간된 『화수도 교본』의 발차기의 우리말 명칭

22) 한병철, 『고수를 찾아서』, 영인문화사, 2003, 192~193쪽.

23) 황기, 『수박도 교본』, 계량문화사, 1970, 40쪽.

24) 강기석, 『태권도 半世紀 인물과 역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01, 28~29쪽.

심으로 수련하였음을 알려준다.

『화수도교본』의 족사용법을 보면, 앞차기.옆차기.돌여차기.두발차기(두발쌍당).쌍발차기.옆빠더차기.뒤차기.찢받기.무릎치기.뛰여차기.거퍼차기.앞으로 발들기.옆으로 발올리기.뒤로 발들기.발로 막기.발로 밀기 등이 설명되어 있다. 6.25이전에 다양한 발기술이 수련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발기술과 관련된 명칭을 좀 더 보면, ‘뛰어 두발 앞차기’를 ‘두발쌍당’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택견에서 쓰는 ‘두발낭상’ 혹은 ‘두발당상’이라는 표기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수도교본』에는 ‘빋차기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택견의 ‘짜차기’와 동일한 기법으로 보여, 택견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 점만으로 ‘택견’의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무덕관에서는 ‘앞으로 발올려나가기’·‘옆으로 발올려나가기’·‘뒤로 발올려나가기’·‘옆빠더나가기’·‘옆차나가기’·‘발로 막아나가기’²⁵⁾ 등의 우리말로 풀이가 되어 있는 발기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전통적인 차기 기법이 사용되었음은 분명하다.²⁶⁾

중앙기독교청년회(YMCA)권법부 출신이자, 강덕원을 창설한 박철희도 그의 저서 『파사권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제 36년 간에는 다만 「택견」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수개처에서만 수련하다가 해외로 유학했던 청년들이 귀국함에 따라 일본의 공수권법과 중국의 국술 권법을 도입하여 「택견」과 아울러 정신수양과 청년들의 체력향상의 방법으로 서울 수개처에서 개설 교수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²⁷⁾

태권도와 택견이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택견의 기술이 흡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듯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많은 발기술이 태권도에 가미된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오던 전통적인 발기술의 영향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김용옥은 그의 저서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에서 60년대 초반에 태권도 도장에서 이미 차기 중심으로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그는 횡으로 양발 벌린 상태에서 그냥 발을 획 돌려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따귀를 때리는 ‘안다리차기’와 발을 S자로 안으로 돌려 발등으로

25) 黃琦, 『花手道教本』, 朝鮮文化教育出版社, 1949, 78~81쪽.

26) 『화수도교본』에는 발기법과 관련해서 우리말 풀이 명칭이 기록된 반면, 손기술 명칭과 관련해서는 正拳一指 拳貫手 등 한자 용어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마도 한글 풀이 명칭의 사용은 가라테 혹은 만주에서 배운 무예와는 별개의 수련법이었던 탓에, 한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는 우리말 명칭이 한자식 용어보다 익숙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도 할 수 있다.

27) 朴哲熙, 『破邪拳法』, 一文社, 1958, 16쪽.

반대편 턱주격을 걷어올려 차버리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김용옥은 ‘안 다리차기’를 택견의 ‘발따귀’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²⁸⁾ S자로 안으로 돌려 발등으로 반대편 턱주격을 차는 기법은 현재 택견의 ‘짜차기’ 혹은 ‘내차기’와 유사한 동작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택견의 영향인지 혹은 발을 사용하는 다른 전통무예의 흔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²⁹⁾ 하지만 이러한 점은 분명히 태권도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즉,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태권도가 전통무예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는 논의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말해준다.³⁰⁾

현재 태권도는 택견과 손동작에서도 희박하게나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유단자 품새의 하나인 ‘고려’에 ‘오른(또는 왼) 아귀손 칼재비’라는 기법이 그것이다. ‘칼재비’는 아귀손으로 상대의 목을 쳐서 조아리는 방법도 있고 낙턱이라 하여 아귀손으로 칠때 손목작용을 하여 턱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치기도 한다. 쳐서 아래턱이 빠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³¹⁾ 이는 택견의 ‘칼잡이’와 동일한 용법이다.³²⁾ 택견의 손동작인 칼잡이가 태권도 품새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 현재의 태권도는 택견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즉, 적어도 현재 태권도 형성에 있어 한국의 전통적인 무예의 영향 또한 존재하고 있음은 인정해야만 한다.

태권도의 형성에 가라테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태권도의 발차기가 현재 가라테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찾을 수 있다. 특히 ‘내려찍기’는 가라테 경기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일본인들도 내려찍기가 태권도의 독특한 기술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³³⁾ 이는 무예 기법은 실용성과 필요에 따라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태권도가 가라테의 기술을 받아

28) 김용옥,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1990, 84-90쪽.

29) 이 점 때문에 양진방은 최홍희나 황기가 택견의 영향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태권도 기술체계 속에는 택견의 기술이나 기술용어(품밧기나 활개짓)이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택견의 기술을 수용했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택견과의 관계는 살펴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는 오히려 일본의 공수와 당수의 지도서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들어 기술체계에 일본의 당수를 수용하였음을 언급하였다(楊鎭芳, 『解放以後 跆拳道의 發展過程과 그 歷史的意義 - 競技 跆拳道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그러나 이 견해는 오키나와나 일본의 카라테에 없는 다양한 차기가 태권도 기술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30) 이에 대해 최영렬·전정우는 태권도의 특유한 기법인 받아차기나 내려차기가 태권도 경기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60년대부터 전승되던 것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서술하면서 선대의 기술이 이어진 것임을(최영렬·전정우, 「태권도사관 정립 방향에 관한 고찰」 『체육과학논총』 10, 1997, 9~10쪽), 이창후도 스텝이나 돌개차기가 이미 50년대에 존재했다는 이준구나 이규석의 증언을 예로 들면서 우리 고유의 몸짓과 연결됨을 언급하였다(이창후,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 상아기획, 2003, 27~28쪽).

31) 국기원 공식 홈페이지(<http://www.kukkiwon.or.kr>) 중 태권도기술 - 품새 설명.

32) 坂上隆祥의 『공수도백과』에 기록된 39종의 型에 나타나는 손동작에는 이 칼재비 기법은 나타나지 않는다(坂上隆祥 著·姜泰鼎 譯, 『공수도백과』, 서림문화사, 2002).

33) 小島一志 監修, 『格闘技 必殺技 53』, ナツメ社, 1997, 92~93쪽.

들인 것도 같은 논리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문화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는 앞서 살펴봤듯이, 가라테와 만주 지역에서 행해지던 권법 그리고 발 기술 중심의 한국전통무예가 서로 영향을 주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무예임을 강조하였던 탓에 가라테(空手)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그 전통성과 정체성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태권도가 형성되는 해방 즈음의 역사를 알게 된 이들은 전혀 별개의 무술로 이해하던 가라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가라테를 보급한 청도관 창설자 이원국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원국은 저서 『태권도교범』에서 그가 우리나라에 가라테를 보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카라테를 배우던 당시 오키나와의 실정과 비교하여 무기가 없는 우리 한국 이야말로 적수공권의 이 무도가 극히 긴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깨달은 바 있어 보급하였다.³⁴⁾

이원국 스스로는 가라테를 일본 무술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일본에 강제 편입된 오키나와의 무술로 이해했으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에 보급하려고 하여 힘을 키우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강덕원 창설자인 박철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에 권법이나 카라테를 보급한 이들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이다. 윤병인 선생이나 연무관의 전상섭 선생은 민족적인 자긍심에서 태극띠를 착용했으며, 유단자의 띠도 6.25사변 전에 연무관에서는 유단자의 띠가 지금의 검은띠와는 달리 띠의 위와 아래는 파란 줄이고 가운데에 흰줄이 들어가 있는 띠를 착용했었다. 또한 무덕관은 고구려의 복장을 도복으로 채택하는 등 젊은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었다. 더군다나 이들은 카라테를 일본 무술로 이해하지도 않았다. 카라테는 일본 무술이 아니라 식민지라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던 오키나와의 무술로 이해한 것이다. 일설에는 일본카라테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나고시 기진(船越義珍)’이 카라테를 일본에 보급한 것은 오키나와가 일본에 점령을 당하고 점점 독립의 희망은 사라졌지만, 그가 카라테를 가르친 사람들에게 의해 오키나와의 정신이 기억되

34) 李元國, 『跆拳道教範』, 進修堂, 1969, 34쪽.

고 카라테가 전승되는 한 언제까지고 남겨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카라테를 배우는 사람들은 결국 이 무술이 오키나와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오키나와라는 독립국가에 대한 인식이 백년이고 천년이고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마 당시 우리나라에 ‘오키나와 카라테’를 보급한 이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³⁵⁾

박철희의 언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에 처음 보급한 이들은 지금의 왜색논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라테를 ‘일본의 무도’로 인식하는 현재의 입장에서 이를 일본에 유학하던 조선인들은 ‘오키나와인’들에게 배웠던 오키나와의 무예를 현재의 상황에서 ‘일본인’의 무예로 간주하고, 태권도가 일본 무도를 모방했다고 하는 인식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한다. ‘오키나와 가라테’가 ‘일본 가라테’와 ‘우리나라 태권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듯하다.

지금까지 언급을 했듯이 태권도는 카라테 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해방 이후 다양한 무예(가라테와 만주 지역의 무예 그리고 발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여, 이제는 가라테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무예로 발전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현재의 태권도는 가라테와는 별도의 무예라는 데에 혼란을 갖지 않아도 되리라 여겨진다. 추후 전통적인 동작을 연구하고, 이를 좀 더 보완하면 우리 무예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태권도에 가라테의 잔재가 남아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반반 정도 찬성과 반대가 나눌 듯하다. 가라테 품세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한 반면, 또 반대로 겨루기는 가라테 경기와 완전히 다른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도 태권도를 ‘발로하는 복싱’이라고 할 정도로 손기술이 거의 배제된 발기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가라테보다는 오히려 택견의 겨루기에서 더 가까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태권도는 분명 가라테와는 다른 품격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택견과 비교가 더 용이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갖게 되었다. 물론 태권도가 좀 더 발전하려면, 품세와 겨루기의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모색한다면, 빠르면 분명 몇 십 년 안에 우리 전통무예다라고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

35) 박철희 구술·허인옥 정리, 『사운당의 태권도이야기』, 미간행소책자, 2005, 35~36쪽.

이와 같이 태권도라는 한국 무예의 시작점에서 지금까지의 발전되는 과정에서 보면 가라테라는 오끼나와 무예의 영향도 있었지만, 중국 만주 지역의 권법의 영향 그리고 택견이라는 한국 무예적 요소가 현재의 태권도를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을 통해 교류한 한·중·일 무예가 『무예도보통지』라는 한국 무예의 기록유산으로 남는 것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맨손 무예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태권도와 같은 신체문화에는 기존의 가라테나, 중국 권법, 택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신체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한국 신체문화라는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신체문화인 전통 무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사업에서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 및 전통의 뿌리, 문화적 정체성, 문화 간 교류 촉진, 현대사회의 사회적·문화적 역할, 기능 및 기술 응용의 탁월성,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적 전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4 장 결 론

2011년 줄타기, 한삼모시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은 전통무예로서 우리나라 신체문화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는 신체문화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사업은 세계적 가치를 지닌 유산들이 개별국가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꾸고 보존하여야 할 인류의 공통자산이라는 인식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고양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문화의 획일화, 상업화, 종속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다원적 가치를 상호 존중함으로써 민족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제협약의 제정, 국제회의 개최, 자료 발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제정하고 세계기록유산사업 전개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우리의 문화유산들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등재 사업에 동참하여 세계의 다른 문화의 다른 문화에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등재하는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할 수 있는 문화 요소를 발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과 역사가 배어 있는 전통적 신체문화가 담겨 있는 전통 무예를 발굴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백범일지의 마지막 장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백범은 다음 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強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나는 우리 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백범 김구가 원하는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풍부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태권도 경기화의 본산

전라북도

태권도를 조명하다

